



시각 장애 아동에 바이올린 레슨
독거노인 찾아 셋이 함께 공연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할래요

바이올린 선율에 담긴 특별한 사랑

■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금상 광주 송원여고 이문경 양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로 공부해 보고 싶어요."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대회장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서 17일 금상을 수상한 이문경(18·송원여고 3년·시즌) 양의 앞으로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277건, 5천928명의 중·고생이 참가해 지난 9월부터 지역별 수상자 선정이 시작됐다. 이 양은 광주 지역 대표로 선정돼 다시 중앙 심사과정을 거쳐 최고상(친선대상) 다음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 양이 봉사를 시작한 것은 3년 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하고 온 뒤였다.

"미국에서 여름방학 동안 장애인들에게 바

이올린을 가르치는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와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어요."

이 양은 어머니를 비롯한 교회 사람들에게 같은 뜻을 전했고, 지인의 소개로 시각장애인 미선(가명·9세)과 지선(가명·9세)양을 만났다. 처음엔 이 양을 무서워 해 말을 불이기도 쉽지 않았다.

이 양은 "아이들의 낯가림이 심해 봉사를 다짐했으면서도 스스로 맘고생을 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수록 친해져 벽이 허물어지더니 이젠 안 보면 궁금한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악보를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악보를 일일이 불러주는 일은 고역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 방학은 물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양의 매주 토요일 오후 3~4시간

은 아이들 둘이었다. 실력이 조금씩 붙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셋이 함께 공연도 할 수 있었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죠. 실력이 많이 서툴러 화려한 기교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독거노인들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끝내고 박수를 받을 때 아이들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 양은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고민데 봉사에 너무 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생활처럼 몸에 배 있어서 크게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양의 꿈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농촌을 찾아 마을 가꾸기, 과수원 일손돕기, 독거노인 집 청소 등의 봉사를 정기적으로 펼친 흥진영(광양제철고 2년) 양 등 19명으로 구성된 '투게더'팀도 금상을 수상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 '밀양' 이창동 감독

'도쿄 필맥스' 심사위원장 위촉

을 간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 영화 '밀양'의 이창동 감독이 제8회 도쿄 필맥스'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주최측은 또 뉴욕영화제, 런던필름페스티벌에 초청됐고 내년 아카데미 영화제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도전할 한국 대표로 뽑힌 '밀양'을 오는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8회 도쿄 필맥스(TOKYO FILMeX 2007)'의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도쿄 필맥스는 작가주의를 표방한 국제영화제로 아시아의 신진 작가들의 경연장인 경쟁부문과 세계의 최신 영화를 소개하는 특별 초대부문, 영화사 거장을 소개하는 특집 상영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수 비, 세이텍 인수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가수 비(본명 정지훈·25)가 코스닥 상장사인 캐세이택스를 인수해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및 공연 사업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비는 17일 "국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블루투스를 비롯, 휴대전화 부품 관련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 및 출원하는 회사인 세이텍에 투자 및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세이텍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 '추석 연휴 특별 안전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현만 사장은 지난 11일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추석 연휴 기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새마을운동 광주남구지회 '사랑의 송편빚기'



새마을운동 광주남구지회(회장 박경준) 회원들이 17일 남구청 구내식당에서 송편을 빚고 있다. 330kg의 재료로 빚은 송편은 이날 흘로 사는 노인 160세대에 전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렇게 컸어요...이젠 나타나 주세요"

■ 엄마 찾아 광주 온 네덜란드 입양 천운선·광우 남매

97년 이어 두번째 "추석 함께 보내고 싶어"

당시 충현원측은 남매마저 헤어지게 할 수 없어 입양서류 빙간에 '두 아이를 함께 입양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줬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 농화학 교수이자 남매의 양아버지(64), 그는 베트남 전쟁 고아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동양계 여자아이의 입양을 결심했고 입양서류에서 남매의 사정을 접하고 두 아이를 함께 기르기로 했다. 그로부터 30년째, 강산이 세 번 바뀌면서 이들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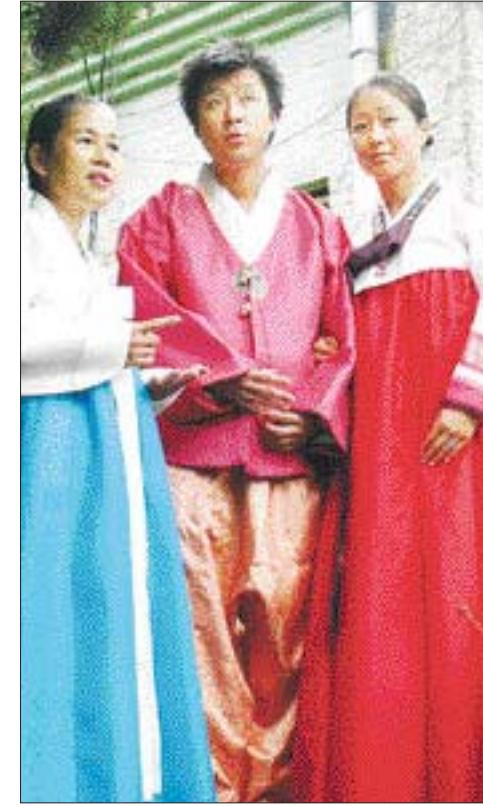
누나 천씨는 부산의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맡기고 한 'struktur'이라는 건축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동생 천씨는 'swiss life'라는 인터넷 컨설팅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누나 천씨는 결혼해 지난해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제스퍼 영표(11개월). 네덜란드 축구팀에서 활동했던 이영표 선수의 이름을 냈다. 한국과 어머니가 그리웠고 보고 싶어서

다. 고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997년 디녀간 뒤 두번째. 이들은 "우리를 버리고 32년 동안 가슴 아팠을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프다"며 "할머니가 된 것도 모르고 계실 어머니를 찾아 손자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광주를 찾은 천씨 남매는 남구 양립동의 '충현원'(원장 유해량)에서 머물고 있었다. 30년도 넘은 허름한 나무 침대에서 밤을 보내고 그만큼 오래된 철밥그릇에 밥과 김치 담아 먹었지만 "살면서 가장 편안했던 하루"였다고 감격했다.

두 달의 휴가 기간은 이제 6일밖에 남았다. 오는 23일 출국을 앞둔 천씨 남매는 "어머니를 찾게 된다면 아이와 함께 다시 찾아와 한국의 명절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다.



광주를 찾은 네덜란드 입양아 남매 천운선·광우 씨가 입양되기 직전까지 머물던 광주시 남구 양립동 '충현원'의 한 건물 앞에서 유해량 원장(사진 왼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충현원 문의전화 (062)652-5500 (유해량 원장 010-5630-2214)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클릭 한번으로 광주 전략산업 '한눈에'

GSSIIS 개발 이끈 광주 테크노파크 김찬영 기업지원팀장

"광주전략산업 종합정보망(GSSIIS)은 산업·전자산업 등 광주 전략산업에 대한 포털사이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7년 지역혁신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연구지원기관 부문 대통령상을 차지한 GSSIIS의 개발 실무자 김찬영(41·광주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 팀장)씨는 "기술혁신 활동의 활성화, 지역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게 수상 이유"라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등 13개 지원기관이 공동개발한 GSSIIS는 해당 산업분야의 장비나 인력, 기술 등에 대한 3천 500건에 달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

어 혁신적인 네트워크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GSSIIS(www.gssiis.or.kr)를 클릭하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울 때 어디에 입대가 가능한지, 사양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가능해 업계종사자들로부터 해결사로 불린다.

김 팀장은 "향후 산업지원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주도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 현장밀착형 온·오프라인 컨설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

김화진 前 남구의원

민주당 청소년특위장에

김화진 전 남구의원이 민주당 중앙당 청소년 보호 특별 위원장에 임명돼 18일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박상천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화진 전 남구의원이 민주당 중앙당 청소년 보호 특별 위원장에 임명돼 18일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박상천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512-4000, 528-8500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 결혼 이후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북구지역

결혼 이후 여성 30명. 한글·컴퓨터·

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3700

▲ 광주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 = 정

신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

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

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 민묘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 =

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

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 =

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

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 한미음장애인립생활센터 활

동 보조인 모집 = 북구 운남동 체험

홈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 김성태씨 별세 영수(재미)·영재(전 현대백화점H&S)씨 부친상 이병문(전남지역재인협회 사무국장)·김세종(재 캐나다)씨 빙부상

=발인 19일(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1호. 02-3010-2262

▲ 신영철씨 별세 상우(일곡초교 교장)·동진(사업)·동주(경기도 봉일천초교 교감)·동현(SK기술연구소 소장)씨 부친상=발인 18일(화)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10-3923-3772, 250-4412.

▲ 한원석(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씨 별세 인수(경건신학연구소장)·현수(승설대 교수)·강수(광주명성교회 담임목사)씨 부친상=발인 18일(화) 광주제일교회 예배당. 382-100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나들이 트레킹 트레일 트레일

T.062-227-4000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청

전화 (062) 521-110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최기술(전 광주은행 본부장)씨
차남 정민(KBS 광주방송총국 기자)군 김철곤씨 차녀 희경(정광고교사)양=29일(토) 오후 1시30분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권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해악,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